

예술로 열릴 외교 무대 경주 APEC, 빛으로 물들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무대가 될 경주에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의 작품이 걸린다. 외교 무대의 긴장감을 완화하고 공감의 장을 여는 ‘심리적아이스 브레이커(Psychological Icebreaker)’로서 예술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이남 작가, 정상회의장·KTX역 등에 미디어아트 6점 설치
전통·첨단 어우러진 빛의 예술...세계 정상들의 대화를 잇다

이 작가는 오는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정상회의장, 경주 KTX역 웰컴존, APEC 경제전시장 등 주요 공간에 총 6점의 미디어아트를 설치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의 전통미와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예술을 통해 ‘공감에서 협력으로’ 나아가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한다.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곳은 정상회의장이다. 길이 30m에 달하는 초대형 미디어패널에는 ▲고전 회화-해피니스 ▲풍유도원도 ▲금강 내산 ▲전 회화-해피니스 ▲목죽도 등 네 점이 연이어 상영된다.

‘고전 회화-해피니스’는 고요한 동양의 풍경과 LED 빛, 잔잔한 사운드로 회의장을 감싸며 정상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의 공간을 만든다.

안경의 ‘풍유도원도’를 재해석한 작품은 이상향을 꿈꾸는 인류의 염원을 담아 각국 지도자들이 공통의 비전을 떠올리게 한다.

‘금강 내산’은 남북의 상징적 건물인 한 산 위에 공존하는 모습으로 ‘분단’을 넘어선 공감의 이미지를, 김홍도 원작을 모티브로 한 ‘목죽도’



‘천년의 문 - 신라의 꿈을 지나’



‘김홍도 - 목죽도’



‘신 - 풍유도원도’

는 보이지 않지만 느낄 수 있는 협력의 바람을 시각화했다.

APEC 경제전시장 입구의 미디어월에는 ‘미래의 문’이 설치됐다. 약 20m 길이의 복도형 구조물에 구현된 이 작품은 신라의 문화유산을 현대적 기술로 재조명하며, APEC의 미래지향적 메시지를 전한다.

경주 KTX역 웰컴존에는 ‘천년의 문 : 신라의 꿈을 지나’가 공개된다. 첨성대, 석굴암, 금관, 황룡사 9층 목탑 등 신라의 상징을 인공지능 알고

리즘으로 되살린 이 작품은 K-컬처의 뿌리와 미래를 잇는 관문이다. 특히 블랙핑크 제니의 뮤직비디오 ‘ZEN’ 영상이 연이어 상영되며 전통과 현대 한류가 만나는 독특한 융합의 장을 연출한다.

이이남 작가는 “예술은 언어를 초월한 대화의 방식이다. 서로 다른 문화가 예술 속에서 만나고, 그 만남이 공감으로 확장될 때 진정한 협력이 시작된다”며 “한국의 전통미와 기술이 만나 세계가 예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에서도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한 그의 작품은 이번 APEC 정상회의 특별전에서도 언어와 이념을 넘어 소통의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이남 작가는 최근 광양국제미디어아트페스티벌 개막식 총감독을 맡아 성황리에 행사를 이끌었으며, 중국 쑤저우 우문화박물관 ‘예술 입은 한복’전과 항저우 전시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한 국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명진 기자

‘어느 멋진 가을날에’ 성악가 김동규 콘서트

내일 광주예술의전당...광주불교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깊어가는 가을, ‘국민 성악가’ 김동규(사진)가 광주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음악의 밤을 선사한다.

BBS광주불교방송 개국 3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2025 어느 멋진 가을날에’ 콘서트는 오는 30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다.

한국인 최초로 이탈리아 밀라노 라 스칼라(Teatro alla Scala)에 데뷔해 거장 리카르도 무티와 오페라 ‘리콜레토’를 함께한 김동규는 폭넓은 장르의 활동으로 대중과 꾸준히 소통해왔다. ‘제24회 한국 방송대상 성악가상’을 수상한 그는 1994년 노르웨이 그룹 시크릿가든의 연주곡 ‘Serenade To Spring’에 가사를 붙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로 전국적인 사랑을 받으며 ‘국민 성악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에서 김동규는 기악·편곡·선곡 등 전반을 직접 맡아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무대를 선보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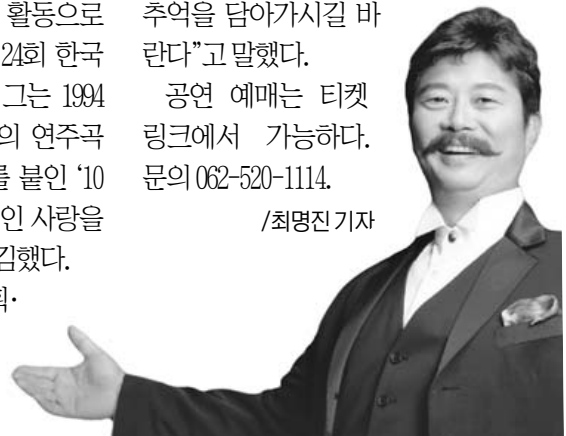
다.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로 구성된 ‘DK 앙상블’이 함께하며, 독특하고 풍성한 음색으로 클래식의 매력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 출신 성악앙상블 루미나(Lumina)와 남성 성악그룹 콰트로 루오테(Quatro Ruote)도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관객을 만난다.

최갑렬 BBS광주불교방송 사장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고 행복한 공연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연 예매는 티켓링크에서 가능하다. 문의 062-520-1114.

/최명진 기자



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 미술시장 가능성 확인

4일간 관람객 2만8천여명 방문

생애 첫 작품 구매 비율도 급증

호남 최대 미술시장인 ‘제16회 광주국제아트페어’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아시아 중심 아트페어’의 새로

운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국내외 미술 관계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올해 아트광주는 11개국 94개 갤러리가 105개 부스를 운영하며 회화, 판화, 사진, 공예,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였다.

전국 미술시장 침체 속에서도 2만8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고, 개막일에는 관객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을 서는 ‘오픈 런’ 풍경이 연출됐다. 관람객 만족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7%가 ‘내

년에도 방문하겠다’고 답해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전시 기간에는 중·저가 작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젊은 세대와 초보 컬렉터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다. 가족 단위 관람객, 20~30대 직장인들의 방문이 이어지며 미술시장 저변 확대의 가능성도 확인됐다.

특별전 ‘거장의 숨결전’은 여수 출신화가 손산기(1949~1988)를 조명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슨트 프로그램과 체험행사는 조기 마감되는 등 인기를 끌었고, ‘아트광주의 밤’ 행사는 컬렉터간 교류의 장으로 이어졌다. /최명진 기자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 ‘예술한첩, 나를 찍다’

내달 1~7일 담빛청소년문화의집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손은아)는 오는 11월1일부터 7일까지 담빛청소년문화의집 1층 로비에서 청소년 미술작품 전시회 ‘예술한첩: 나를 찍다’를 연다.

이번 전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마음치유, 봄처럼’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유일하게 선정

돼 5월부터 9월까지 진행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선보인다. 참여 청소년 8명의 회화 및 설치 작품이 전시된다.

개막행사는 11월1일 오전 11시부터 열리며, 청소년과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케이터링 리셉션이 진행된다. 또한 작품 해설 프로그램인 큐레이터 토크를 통해 관람객이 작품의 의미와 제작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

한편 담양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학교밖청



소년지원센터는 담양군 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며, 9월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지원, 부모교육, 학교밖청소년 지원,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양=정승균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